

동의보감촌

■ 코스 지도

허준과 함께 떠나는 지리산 약초 여행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동의보감촌의 개요	동의보감촌 소개와 일반 개요	민속자료
2	허준, 류의태 동상	허준과 류의태에 대한 설명	민속자료
3	한의학박물관 기획전시실	동의보감에 대한 설명	민속자료
4	한의학박물관 전통의학실	한방진료과정과 생활 속 한방	민속자료
5	한의학박물관 약초전시실	사상의학과 효자 갑동이 이야기	민속자료
6	한방테마공원	한의학의 기본 원리	민속자료
7	기체험장	기체험 방법	민속자료

1. 동의보감촌의 개요

산청...! 저는 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리산 천왕봉을 머리에 이고 있는 그야말로 산 좋고 물 맑은 이곳이 제 주무대였거든요. 아, 제가 누구냐구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마 ‘허준’을 보셨지요? 쑥스럽지만 저도 참 열심히 챙겨봤는데, 거기 주배경지가 산음이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 산청입니다. 이곳의 모든 것은 제겐 교과서이면서 실험 도구였지요. 지금은 서울땅이 되어버린 경기도 양천에서 태어난 제게 이 곳 산청은 제 2의 고향과 같습니다.

예로부터 지리산의 웅대한 기운과 맑은 계곡물을 머금은 천 여 종이 넘는 야생약초가 자라고 있어서 저의 지적호기심을 충족시켜주었습니다.

이런 약초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근데 이 산청에 제가 쓴 책 ‘동의보감’을 테마로 해서 마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동의보감촌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2013년에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를 개최한다는데,

그 해가 제가 동의보감을 발간한 지 400년이 되는 해라나요. 하하.. 세월 참 빠르지요?

동의보감촌이 대체 어떤 곳인지 궁금해 꼼꼼히 동의보감촌을 둘러봤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 커다란 호랑이 머리가 보입니다. 그 주변으로 다양한 조각모형들과 분수, 그리고 커다란 동상들까지...

애들이 꽤나 좋아하겠는대요?

이곳 저곳 둘러볼 곳이 많겠지만 제겐 이곳이 제일 구미가 당기네요. ‘한의학 박물관’

사람들도 꽤 많던데, 대체 뭐하는 곳인지 안 들어가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자 같이 가지죠?

2.허준, 류의태 동상

한의학박물관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인사드릴 분이 계시더군요.

드라마에서 저와 함께 나오신 류의태 선생의 동상입니다.

이 분 동상 앞엔 제 동상도 있는데 제 입으로 저를 칭찬하려니 좀 쑥스럽네요.

그래서 남의 입을 빌어 제 소개를 좀 한 다음 류의태 선생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지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구요, 조선시대의 명의 양예수 선생의 ‘의림촬요’라는 조선시대 의학자들의 전기에 쓰인 내용인데 제가 이랬답니다.

“본성이 총민하고 어릴 때부터 학문을 좋아했으며, 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에 조예가 깊어서 신묘함이 깊은 데까지 이르렀다. 사람을 살린 것이 부지기수다.”

하아...! 저도 한 때는 저렇게 잘 나갔군요.

저는 어려서부터 산천을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 그것이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를 연구하길 좋아했지요. 그리고 간간히 치료를 하면 동네사람들이 병석에서 일어나기도 했구요.

‘류의태 선생’이라는 분도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더군요.

류의태 선생은 산청군 신안면 상정마을에서 출생하였고, 당대 최고의 신의로 알려졌으며 금서면 화계지구에서 의술활동을 하셨습니다.

산청 출신으로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으며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지 않고 아픈 백성이라면 누구나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세상에 널리 의학을 알린 선구자 이셨습니다.

저희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분들이긴 하지만 이곳 산청이 낳은 두 분의 명의를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허초객과 허초삼 형제입니다.

형인 초객은 약 처방에 능했고, 아우인 초삼은 경지에 이른 침술로 유명했지요.

정말 산청의 약초들은 명의를 많이도 키워냈네요. 왠지 산청 땅을 밟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신다구요?

자, 그렇다면 걷기운동도 할 겸 한의박 박물관으로 가보실까요?

3. 한의학박물관 기획전시실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의학과 한약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한의학 박물관에 방문객들이 꽤 계시는군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곳이 기획전시실입니다. 이곳에는 약저울과 약재를 자르는 협도, 약탕관 같은 한약 제조 기구들이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아이고! 괜히 저 혼자 얼굴이 붉어집니다. 저의 책 동의보감이 있거든요. (웃음) 근데 이것도 한류인가요?

중국판과 일본판 동의보감도 있네요. 제가 이 책을 내놓은 게 1613년...

사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좀 억울합니다. 저는 1590년에 광해군의 두창 흔히들 얘기하는 천연두를 치료해서 선조와 광해군 모두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당상관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하지만 그 시절이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때가 1608년, 선조께서 돌아가신 직후였지요.

당시 저는 의관으로서의 최고의 벼슬에 올라 있었습니다. 선조를 지키지 못한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조정에서는 저를 모략하는 세력들의 입방아가 시작됐습니다.

광해군 선왕께서 돌아가시다니... 천년만년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는데...

대간1 그리 건강하시던 선조께서 돌아가신 건 모두 어의인 허준 때문인 줄 아뢰오.

광해군 아니 그것이 무슨 소리요? 어의 때문이라니?

대간2 망령된 약을 써서 선왕을 해치신 것이라 사료되옵나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찌 그리 쉽게... 흑흑흑...

대간1 당장 어의 허준을 파직하시고 유배를 보내셔야 합니다~!

광해군 내 그대들의 슬픔을 잘 알겠소이다만 의술이 부족해 생긴 일을 어찌 탓할 수가 있겠는가. 어의는 절대 일부러 그럴 사람은 아니오. 선친과 얼마나 가까웠는데..

대간2 전하~ 전하께서는 지금 그 간악한 허준에게 속고 계시는 것이옵나이다~

어서 허준을 파직하시고 유배를 명하시옵소서~~~~

대간1, 대간2 전하~ 통촉하여주시옵소서~~~~

광해군 오호... 이를 어쩐다...

사실 광해군께서는 저를 참 많이 옹호해 주셨지요. 하지만 저를 향한 문관들의 질시와 견제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광해군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저를 귀양 보내셨지요. 귀양을 떠난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었지만 사실 관직에 있다 보면 시간에 쫓겨 의사로서 해야 할 연구를 못할 때가 많았는데 도리어 유배지에서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 전 선조와 약속했던 '의서'의 대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유배를 떠난 지 1년 8개월 만에 광해군께서는 사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를 다시 내의원에 불러주셨답니다.

어의로 복귀하면서 16년간 준비했던 결과물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의보감'입니다.

동의보감은 현재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한방의서이자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4. 한의학박물관 전통의학실

지난 시절을 떠올리며 다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 오니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진료가 하고 싶어 손도 근질근질해 지기도 하구요

이곳은 전통 의학실입니다.

제가 썼던 것과 비슷한 약수저와 약탕관, 침통과 약절구 같은 기구들이 주욱 전시돼 있지요.

한방 진료과정을 사람 실물 모형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실감나게 만들어놨습니다.

의원이 진맥하는 방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에, 약재를 갈아 약을 만드는 사람.

약을 달이는 할머니까지 참 정교하군요, 저기 창고에서 한약재를 손질하는 사람도 보이시죠?

칼로 약재를 다듬는 여인도 보이구요. 어깨에 침을 맞고 있는 사람의 표정은...

아이쿠, 정말 아파보이네요. 저는 아프지 않게 놔드릴 수 있는데..(웃음).

근데 이걸 보니 왠지 젊은 시절, 아내가 약재를 다루고, 어머니께서 약을 달이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참 곱고 훌륭한 분들이었지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흔들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들이셨습니다.

그 두 분이 계셨기에 저는 일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지요.

아이고! 제가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는군요. 여러분께 이곳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데요. 한약방의 모형을 다 보셨다면 이제 터치스크린 앞으로 모이십시오.

터치스크린에서는 증상별 민간요법과 생활 속 한방을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찰떡궁합 음식과 상극관계 음식 등을 살펴볼 수 있죠.

아니! 그 환상의 짝꿍 햄버거와 콜라, 그리고 맥주와 땅콩은 상극이라네요!

암튼 입에 단 음식들은 꼭 이렇게 우리의 허를 찌른다니까요!

요즘 들어 참을성 없이 상극음식을 좀 먹은 것 같은데, 건강상태를 한 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다면 바로 옆에 있는 한방체험실에 들러야 합니다. 말초혈액순환, 건강 나이, 신장, 체중,

체지방, 혈압, 맥박 등을 측정해 볼 수 있거든요. 꼭 한 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을 위한

올바른 습관도 습득하세요!

5. 한의학박물관 약초전시실

쿵쿵.. 쿵쿵... 음~ 이게 도대체 무슨 향이지요?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려는데,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의 향기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기가 나네요. 아하! 그렇군요. 약초 전시실이었네요. 어때세요? 여러분도 은은하면서도 짹짹한 '약초'향 느껴지시죠? 약초전시실에 들어오니 한쪽 벽을 장식한 다양한 약초 표본과 압화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그 옛날 저도 이것들을 찾아 많이 다녔었는데... 아..! 정말 반갑군요. 하늘매발톱이며 석장풀, 땃잎현호색, 산괴불주머니, 층층이꽃, 일엽초 같은 우리 약초들.. 이름이며 모습들이 참 아름답지요? 흔히 듣고 보던 야생화들이 전통한방에 사용된 약초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 약초전시실에 들어와서 가장 흥미로워하시는 건 사상의학에 따라 체질을 알아보고 그 체질에 맞는 약초와 해로운 약초를 알아보는 거더군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 네 가지 체질의 특징에 따른 약재를 살펴보는 거지요. 참고로 알려드리자면 태양인은 인삼과 녹용, 커피가 해롭구요, 대신 모과, 포도, 사과가 이로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지요? 이 사상의학은 약 300년 정도 후배이긴 하지만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제마 선생이 정리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이들 모여계신 건가요..? 앗!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없더니, 요녀석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네요! 귀해서 잘 구할 수 없었던 전충이며 천산갑, 웅담, 녹각교, 석용자, 호골, 우각 같은 희귀한 약재들이죠.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전 값비싼 중국약재가 아닌 우리나라 약재로 처방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아나 산모를 위한 약재와 역병에 대한 많은 처방전을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도 제가 쓴 동의보감을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네요

“기존의 의학서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누구나 건강하게 할 뛰어난 의학서적이다”

전시실 한쪽에 효자 갑동이 이야기를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았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갑동이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시골마을에 병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귀남과 갑동 형제.

막내아들 갑동은 천방지축 천둥벌거숭이로 살며 어머니의 애를 태우고, 귀남은 장남인 자신이 잘 되어야 집안이 잘 된다는 생각에 동생과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한편 내의원 시험에 합격하여 집안을 구하겠다고 한양으로 간 귀남 앞에는 출세를 위한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의 병환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갑동이는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결국 지리산 깊은 곳으로 산작약을 찾아 나섭니다.“

자, 이제 갑동이와 귀남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병환은 누가 고치게 되죠?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미니어처 앞에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저의 스포일러는 여기까지만 풀겠습니다!!

6. 한방테마공원

한의학 박물관을 다 보셨다면 이제 한방 테마공원으로 가볼까요.

그리고 보니 이 공원의 모든 시설물들은 인체 장기와 약방에서 쓰는 기구들을 응용한 거네요. 침을 형상화 한 조형물과 지압길로 깔아놓은 산책로와 소나무가 울창한 나무데크를 따라 걷다 보니 ‘어?’ 웬지 이 공원의 생김새가 낯이 익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 이 공원, 인체형상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산책로가 식도를 타고 가다 심장과 폐, 간과 위, 콩팥과 소장 그리고 방광지를 지나 는 식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인체탐험이 따로 없네요.

또 아까부터 눈에 띄었던 호랑이 모형과 곰의 모형도 한방과 관계가 있었군요.

마늘과 쑥으로 대별되는 한약 관련 최초 설화, 단군신화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참 아기자기하면서 교육적으로 잘 지은 공원이네요.

이 한방 테마 공원은 야경도 아주 멋지답니다.

각 모형물에 형형색색 아름다운 조명을 비추면 우주의 신비감까지도 느낄 수 있지요.

우리 한의학이 우주와 인체의 조화를 중요시하잖아요. 한의학의 기본, 좀 알아볼까요?

저 대신,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동의보감에는 '일침 이구 삼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이요, 두 번째는 뜸이고, 세번째는 약이다'라는 뜻이죠. 이는 한방치료의 효능과 시술 차례를 설명한 말입니다. 일침인 침술은 막혀있는 것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죠. 이구 즉 뜸은 따뜻한 온기를 같이 넣어주어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한기를 몰아내고 통증을 줄이며 기운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마지막 세번째 치료법은 약물요법인데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연물, 즉 한약을 사용하는 치료요법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한방테마공원에서의 산책... 우주의 기와 함께 몸이 정화된 것 같으신가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다음 장소에서는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7. 기체험장

자, 다들 모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자, 크게 한 번 기지개를 쳐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왜 바위를 저렇게 밀고 있는 걸까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하는 것 같다고요?

아하, 그게 아니구요. 저 분들은 지리산의 정기를 받고 계신 거랍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기가 세기로 유명한 곳 중의 한곳입니다. 그래서 기 체험장이라고 부르죠. 기 체험장에서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저 거북바위입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건 아닌데 거북바위에 등을 대고 기를 받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이곳으로 옮겼다고 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 문화관광해설사님께 여쭙볼까요?

“이곳은 백두산의 정기가 태백산맥을 거쳐 지리산 천왕봉에 결정된 후 마지막으로 응집되는 곳입니다. 땅의 기운이 정말 좋은 곳 중 한곳으로 이곳이 아주 유명합니다. 기의 양이 엄청나죠.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허리가 아픈 분들, 어깨가 아픈 분들은 이곳에만 오면 씻은 듯이 낫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기’라는 거 못 믿겠다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자, 저처럼 한 번 해보세요. 거북바위 앞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힘껏 붙인 다음 옆 사람에게 손가락을 떼보라고 해보세요. 그다음엔 거북바위에서 몇 걸음 떨어져서 똑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거북바위 앞에서는 안 벌어지지만 거북바위에서 떨어지니까 손가락이 힘없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기라는 겁니다.

이제 기를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기 체험장에서 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북바위 아래에 서서 머리를 바위에 대고 눈을 감고 있기만 하면 돼요.

자, 이젠 눈을 감고 거북바위에 이마를 살짝 대 보십시오. 머리가 맑아지고

몸속으로 기가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좋은 여행 되셨습니까?

의성 허준과 신의 류의태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방의 고장 산청 여행.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차셨길 바라면서 저, 허준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